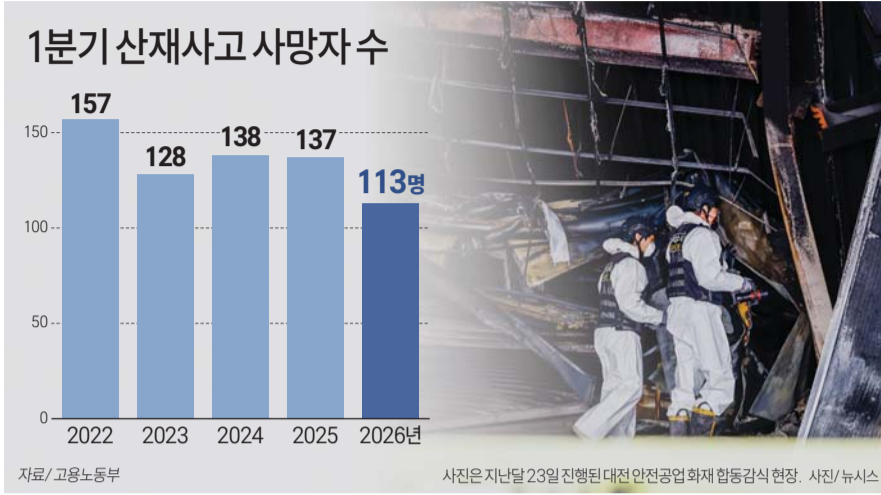


추락사고 줄며 산재사망 '역대 최저'... 건설업 안전지표 개선

고용부,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
건설업 사망자 39명으로 45% ↓
제조업은 대전 화재사고로 증가
위기의식·예방 정책 맞물린 결과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특히 산재 취약 분야였던 건설업 내 '추락 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전체적인 감소세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명)보다 24명(17.5%) 감소

했다. 사고 건수 또한 98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건(2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명(45.1%) 급감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떨어

짐(추락)' 사고 사망자가 31명에 그치며 지난해(62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59명으로 전년 대비 28.9%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서도 사망자가 15명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안전 지표가 개선됐다.

반면 제조업은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20일 대전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집중된 탓이다. 이 영향으로 제조업 사망자는 52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3명(79.3%)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소세에 대해 정부의 예방 중심 정책과 현장의 안전의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부터 산업안전감독관,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산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노사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원칙을 지킨다면 감소 추세가 지속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성과에 대해

서도 "지난해부터 건설업이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사망이 늘었는데, 추락사고만은 막아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예방 중심 정책과 안전의식 제고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분기의 감소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산재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약 10만 개소를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 전수조사와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붕 및 태양광 공사 등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은 지방정부와 정보를 공유해 밀착 감시하고, 제조업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 위험 사업장 39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긴급 점검 및 기합감 독을 진행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협, 농가 260만 명 일손 보태기 '시동'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
유휴인력 연계 도농 이음사업도 추진

농협중앙회가 올해 영농인력 260만 명의 농가 공급을 추진한다. 농협은 지난 13일 경남 새남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6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영농철 도래를 알리고, 범국민적 농촌일손돕기 참여 확산을 다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유·무상 영농인력 260만 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도형 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인력풀을 공유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 은퇴자와 전업주부 등 유휴인력을 도시농협을 통해 모집·연계하는 '농협 도농인력 이음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발대식에는 강호동 회장을 비롯해 범농협 임직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장재



강호동(앞줄 가운데) 회장 등 농협 임직원들이 13일 경남 함천의 한 농가를 찾아 마늘밭에 비료를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

혁 함천군 부군수, 정봉훈 함천군의회의장, 무학·몽고식품 임직원, 경상국립대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이후 경남 함천의 한 농가를 찾아 마늘밭 비료 시비, 레드향 가지치기 등 일손돕기 활동을 벌였다.

농협은 또 '농심천심(農心天心)' 임직원 자율참여형 농촌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법무부와 협력한 사회봉사명령자 영농지원, 보라미봉사단 활용사업 등

무상 영농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수해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에도 범농협 역량을 집중한다.

강호동 회장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촌일손돕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고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농협은 인건비와 영농자재비 상승,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단속

권익위, 내달 13일까지 신고기간
민생 위기 극복 대응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고유가를 이유로 생필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

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신분보호 등 보호조치를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정부 수입 회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유가로 고통받는 산업현장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종 소상공인을,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과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부발전-보령시, 상생 에너지 모델 구축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협약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지난 13일 보령시청에서 보령시와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설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에 발맞춰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 촉진법'과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주민 수익 공유 ▲지역 기업 참여 확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공공자산인 주차장을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해 주민 수익 보장, 일자리 창출, 지역 자금 순환이라는 3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해 실질적인 가계 소득에 기여하고, 시설 건설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지역을 인력 채용 일자리를 늘린다. 또 지역 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왼쪽)과 김동일 보령시장(오른쪽)이 지난 13일 보령시청에서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설치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발전

축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중부발전은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재원 조달, 향후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주민과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농식품창업 과정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이 '농식품창업 아이디어 실현' 과정 교육생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농특산물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과정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창의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농식품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선 ▲창업기업 선배와의 대화

▲상품기획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소자본 창업을 위한 지역농산물 브랜드 SNS 마케팅 등의 실무중심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이달 21~23일 사흘간 경기 수원소재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15일까지 가능하다.

aT는 또 오는 8월 27~28일 기간 '농식품창업 사례분석과 아이디어 도출' 과정이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8월 중순까지 신청 받는다.

오창준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소자본 농식품 창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